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2021, Vol. 40, No. 3, 301-327

<http://dx.doi.org/10.22257/kjp.2021.9.40.3.301>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 개발 연구*

장 은 영†

본 연구에서는 도덕손상 사건 척도(Moral Injury Events Scale)를 한국어로 타당화하였고, 도덕손상 사건으로 인해 경험한 주관적 반응을 측정하는 도덕손상 경험 척도(Moral Injury Experience Scale)를 개발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 9개 문항으로 구성된 국외 도덕손상 사건 척도를 이중번역 과정을 거쳐 한국어로 구성하였고, 이 척도와 별개로 도덕손상 경험 척도를 1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27개 문항에 더하여 수치심, 죄책감 및 분노 척도에 한국 성인 496명이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응답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전체 자료를 무작위로 두 개의 표집으로 분할하여 한 표집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른 표집으로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에서 원척도의 9개 문항 2요소 구조가 반복검증되었으며, 표준화 경로계수도 원척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출되었다. 각 요소는 6개 문항의 ‘자신 혹은 타인의 위반 지각’ 및 3개 문항의 ‘타인 배신 지각’으로 명명하였다. 도덕손상 경험 척도는 18문항 3요소가 가정되었으나, 부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15문항 3요소가 타당화되었다. 각 요소는 6개 문항의 ‘자신에 의한 손상’, 3개 문항의 ‘타인에 의한 손상’ 및 6개 문항의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으로 명명되었다. 그리고 도덕손상 사건의 두 요소와 도덕손상 경험의 세 요소가 수치심, 죄책감 및 분노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서 수렴타당도가 확인되었다. 두 번째 연구에서 도덕손상 사건, 도덕손상 경험, 수치심, 죄책감, 분노, 우울, 일반정신건강 및 삶의만족 척도에 대한 반응을 535명으로부터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수집하였다. 첫 번째 연구와 동일한 문항분석을 실시하여 두 척도의 신뢰도와 요인구조를 재검증하였다. 준거타당도를 확인한 상관분석 결과에서 도덕손상의 다섯 가지 하위요소들은 우울감 및 일반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삶의만족과는 0에 가까운 상관관계를 보였다. 국외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도덕손상 경험에서 한국인들과 미국인들이 드러낸 유사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도덕손상이 도덕관련 정서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였고, 이 척도들의 활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도덕손상, 수치심, 죄책감, 분노, 정신건강

* 본 연구는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NRF-2020S1A5A8044134)과 2020년도 호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장은영, 호남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광주광역시 광산구 호남대길120 지성관 6618호,

Tel : 062-940-5479, E-mail : jangmean@hanmail.net

도덕손상

현대 사회의 인간은 관습, 도덕, 규범, 법령, 규정, 지침 등 다양한 행동기준을 따르며 살아간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법규나 기준은 완벽하지 않으며, 개인의 특징이나 상황적 제약으로 인해 우리들은 자신이 속한 하위문화 혹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의지나 태도에 반하는 사건을 겪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지닌 도덕적 가치나 기준과 다른 행동을 하도록 강요받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이 도덕적 가치와 불일치한다는 점을 나중에 알아차리기도 한다. 혹은 자신이 지닌 도덕적 가치와 상충하는 행동을 목격하거나 전해 듣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양심의 가책이나 인지부조화로 인해 고통을 겪거나,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수정하거나, 혹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반응들 가운데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우리가 단언할 수 없지만, 최신 연구들은 자신의 기준이나 가치와 다른 행동에 직면한 사람은 도덕손상(moral injury)을 경험한다고 제안하였다.

도덕손상의 개념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들은 Litz 등(2009)이 제안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본래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발견한 결과를 토대로 구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들의 경우 전투 자체 혹은 전쟁 중에 수행하는 여러 임무가 개인의 신념 체계를 침해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간은 자신이나 세상이 선하다는 도식을 지니고 있을 수 있는데, 전투나 전쟁 중의 임무들은 이와 같은 도식과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다. 도식과 불일치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혹은 목격하였을 때 인지 부조화가 초래된다. 부조화는 조정

(reconciliation) 절차를 작동시키는데, 조정의 결과는 때로 고통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 귀인이 중요해지는데, 도덕손상을 일으킨 사건의 원인이 전반적(global), 내적(internal), 안정적(stable)이라 귀인할수록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나 우울 증상과 같은 정신건강의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

군인들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혹은 우울장애에 취약한 점은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지된 바 있으나(Porter et al, 2018; Ramsey et al, 2017; Wisco et al, 2014), Drescher 등(2011) 및 Litz 등(2009)은 도덕손상이 퇴역군인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취약성을 더욱 높이는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의 주장을 지지한 경험적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Jordan 등(2017)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되었던 867명의 해군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파병군인들의 부도덕한 행동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매개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으로 연결되고, 배신당한 사건은 분노를 거쳐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으로 연결되는 점을 발견하였다. Battles 등(2018)은 244명의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도덕손상을 초래한 사건, 도덕손상,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 증상, 자살가능성, 알콜사용 문제 및 약물사용 문제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에서 도덕손상을 초래한 사건과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도덕손상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 점이 발견되었다. 유사하게 Bravo 등(2020)은 전투 중 부상을 당한 189명의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도덕손상이 우울, 불안, 외상후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발견하였다. 미국의 주 방위군 93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Bryan et al., 2018)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증상과 도덕손상은 자살사고를 높이고, 이는 다시 자살

기도로 이어졌다.

도덕손상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가? 정신건강 전문가들을 심층면담한 Drescher 등(2011)은 도덕손상 사건(MIE, Moral Injury Event)은 개인의 신념체계에 반하는 사건이며, 도덕손상(MI, Moral Injury)은 이에 대한 반응이라고 구분하였다. 도덕손상을 언급할 때 이 두 개념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도덕손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두 도덕손상을 겪지 않기 때문이다(Bravo et al., 2020, 53쪽에서 인용). 도덕손상 사건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내적 갈등의 결과가 주로 '죄책감, 수치심, 자신이나 타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것, 사회적 철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대해 연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졌다(Battles et al., 2018; Litz et al., 2009).

이상에서 기술한 연구들은 도덕손상의 조작적 정의, 그 원인과 결과를 군인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하지만 도덕손상이 직업적으로 외상사건과 관련이 높은 이들에게서만 출현한다고 단언할 수 없으며 이 개념을 검증한 경험적 연구의 범위는 최근 더욱 확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간호사들의 도덕 갈등을 다룬 McCarthy와 Dedy(2008)의 연구를 참고할 만하다. 이 연구에 의하면, 도움이 되지 않는 치료나 불필요한 검사를 환자들에게 실시하는 것을 목격한 간호사들은 동료들에 대한 연대감을 상실하거나, 양심에 상처를 입거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던 가치가 손상되는 점을 경험하였다. 비록 이 연구가 도덕손상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도덕손상 사건이나 그 반응은 군인이나 경찰 등의 특정 직업군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덕손상과 정신건강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Williamson et al.,

2018), 어느 직업군 및 어느 세대에서건 도덕손상은 정신건강의 문제를 초래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들은 외상사건과는 독립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여겨지는 행동에서 비롯된 죄책감과 수치심이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6,373명 표집의 13개 연구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도덕손상 사건은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군관련 사건 여부와 인구통계학적 요소들은 도덕손상 사건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최근 도덕손상은 특정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국외 임상현장의 치료작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도덕 손상을 위한 수용전념치료 매뉴얼(Evans et al., 2020)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 도덕손상 개념은 여전히 생소하며 이를 측정하는 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도덕손상은 특정 직업군을 벗어나 옹고 그룹이나 당위에 관한 신념체계를 가진 개인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도덕손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는 국내외 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직업을 포함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인들의 도덕손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도덕손상의 평가

도덕손상이 새롭고 차별화된 개념이며 인간의 정서와 정신건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점이 지지되면서 이를 측정하기 위한 시도도 이루어져 왔다. 도덕손상 경험의 발생을 탐색한 질적 연구가 있다(Drescher et al., 2011). 이 연구는 퇴역군인들을 치료하는 정신건강 전문

가들을 면담하여 도덕손상을 일으키는 사건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배신(betrayal: ex, leadership failure), 과도한 폭력 행위(acts of disproportionate violence: ex, revenge/retribution), 민간인이 관련된 사건(incidents involving civilians: ex, destruction of property) 및 동급 폭력 행위(acts of within-rank violence: ex, sexual assault)이다.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도덕손상을 평정한 연구들을 개관한 결과(Koenig et al., 5-6쪽의 표 1 참조)를 보면, 도덕손상은 도덕가치를 위반한 사건의 유형별로 혹은 도덕과 관련되는 정서(예, 죄책감, 수치심) 별로 측정되어 온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도덕손상 모형의 제안과 더불어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개발도 군인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Currier 등(2015)이 개발한 도덕손상 질문지-군대형(Moral Injury Questionnaire-military version)을 Robbins 등(2017)이 4점 척도의 20문항으로 수정하였고, 이를 Battles 등(2018)이 재수정하였다. 2018년에 수정된 척도는 군복무자에게 세 가지 사건(atrocities of war, psychological consequence of war, or leadership failure/betrayal)을 목격했는지 혹은 직접 행동하였는지 묻고, 사건별로 ‘죄책감, 수치심,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움, 타인을 용서하기 어려움, 사회적 철수’의 다섯 가지 반응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도덕손상 사건과 반응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종합하는 방식이다.

Currier 등(2018)은 군복무자를 대상으로 도덕손상의 정도를 직접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들은 1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척도를 제안하였는데, 이는 자기지향 반응(self-directed symptoms, 예: ‘나는 내가 군복무 동안 한 일로 나 자신이 부끄럽다.’)과 타인지

향 반응(other-directed symptoms, 예: ‘군 복무를 돌아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한 일로 역겨움을 느낀다.’)의 하위척도로 나뉜다.

이상에서 기술한 국외 척도들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직업군, 특히 그 가운데서 군복무 경험에 주로 국한되었다는 한계점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반면에 Nash 등(2013)이 개발한 척도는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표집의 일반화가능성이 더 높다. 구체적으로 ‘군대, 전쟁, 전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며, ‘군복무자 이외의 타인’을 가정한 문항이 척도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도덕손상 사건을 11문항 3개 요소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나(Appendix, 651쪽)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9문항 2요소 구조를 제안하였다. 이 척도는 외상 사건 경험과 상관없이 상하관계나 명령을 포함하는 직업군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구애받지 않고 활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척도들에 비해 문항의 수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Nash 등(2013)의 도덕손상 척도를 한국어로 표준화하여 다양한 직업적 및 개인적 배경의 일반성인들이 도덕손상 사건을 인식한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다만 Nash 등(2013)의 척도는 상하관계를 비롯한 개인적 접촉을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있으므로, 업무나 공적 관계를 벗어난 일상에서 겪은 사건이나 낯선 타인의 행동으로 인한 도덕손상을 측정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행위의 주체가 자기인 조건과 타인인 조건을 한 요인으로 통합하여 사용하며, 도덕손상 사건과 그로 인한 경험이 혼재되어 측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¹⁾ 이에 일반성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도덕손상 경험을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척도를 추가적으로 개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¹⁾ 두 유형의 척도가 개발되면 다양한 국내 표집을 대상으로 도덕손상을 측정하여 도덕손상으로 인한 고통을 완화하는 치료프로그램에 활용하고, 한국 성인들이 경험하는 도덕손상의 수준과 그로 인해 초래되는 우울을 포함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탐색하며, 그 조절 혹은 매개요인을 알아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표준화한 척도를 사용하여 국내 다양한 표집으로부터 결과를 수집하면 국외 연구의 통계값과 비교하여 사회문화적 차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목적과 가설

한국어로 번역된 Nash 등(2013)의 도덕손상 사건 척도(Moral Injury Events Scale)를 타당화하고, 한국 일반 성인들이 도덕손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다양한 반응을 어느 정도로 경험하는지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목적을 위해 두 개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로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와 도덕손상 경험 척도를 문항분석하여 최종 요인구조를 결정하고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도덕손상과 관련 높은 정서로 죄책감, 수치심, 분노감(Battles et al., 2018; Litz et al., 2009)이 제안되었고, 죄책감과 수치심은 전통적으로 대표적 도덕관련 정서라 알려져 있다(Fabricius, 2004; Tangney & Dearing, 2002). 이에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죄책감, 수치심, 분노감을 측정하였고, 이 변인들과

도덕손상이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두 번째 연구는 첫 번째 연구와 독립된 표집을 대상으로 앞서 추출된 요인 구조를 재타당화하고, 신뢰도와 수렴타당도를 재검증하며, 준거타당도를 검증하고자 이루어졌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도덕손상이 우울을 비롯한 정신건강의 문제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죽음에 대한 생각에 영향을 미쳤다(Battles et al., 2018; Bravo et al., 2020; Bryan et al., 2018; Jordan et al., 2017). 이에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우울, 일반적 정신건강 및 삶에 대한 만족을 측정하였고, 이 변인들과 도덕손상이 유의한 상관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1.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타당화

방 법

조사절차 및 참가자

온라인 조사를 임의표집 방식으로 2020년 9월에 실시하였다. 온라인 조사 기관에 등록된 이들 가운데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대한민국 성인에게 조사참여 링크가 전달되었고, 연구목적과 설명을 읽고, 참여에 동의한 사람들이 문항에 응답하였다. ‘도덕’이라는 표현이 사회적 바람직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연구 목적을 “한국인들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다.”라고 기술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도덕손상 경험 척도, 죄책감, 수치심 및 분노를 측정하는 문항들에

1) 원칙도의 내용이 사건지각과 그로 인한 경험이 혼재된 점을 지적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에게 감사사를 표함.

응답하였으며,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온라인 조사 기관으로부터 3,000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받았다.

온라인 조사에 앞서 오프라인 방식으로 대학원생 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조사에서 응답을 완료하는 데 최대 10분이 소요되었다. 이에 15분 이상 소요되었거나 3분 이내로 응답을 완료한 사례는 유효하지 않은 응답으로 처리하도록 설정하였고, 최종 500명의 유효한 자료를 수집할 때까지 온라인 조사가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의 개인연락처는 연구책임자가 직접 수집하지도, 전달받지도 않았고, 참가자들의 동의 여부, 문항에 대한 반응, 성별, 연령, 학력 및 응답을 완료하는 데 소요된 시간 자료만 전달받았다.

500명의 자료 가운데 496명의 응답이 유효한 자료로 처리되었다. 제외된 4명은 도덕손상과 관련된 문항들에 모두 동일한 반응을 보인 이들이었다. 최종 496명은 남성 191명(38.51%)과 여성 305명(61.49%)으로 구성되었다. 평균연령은 39.52세($SD=11.03$)이었으며, 최소연령은 20세, 최대연령은 69세이었다. 20대 104명(20.97%), 30대 157명(31.65%), 40대 136명(27.42%), 50대 75명(15.12%), 60대 24명(4.8%)이었다. 대학교 졸업 이상 395명(79.64%),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1명(20.36%)이었다.

윤리적 고려

두 개의 소연구에 대하여 호남대학교 기관 윤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1041223-202008-HR-11,13). 온라인 조사 방식의 선택, 실제 연구목적과 다르게 연구목적을 소개해야 할 필요성 및 연구참여에 대한 댓가 등에 대해 기관의 승인을 얻고 난 후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번역 및 개발 절차

도덕손상 사건 척도의 번역

Nash 등(2013)이 개발한 원칙도의 문항과 지시문이 연구의 목적이나 가설을 알지 못하는 심리학자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되었다.²⁾ 번역된 내용은 이중언어자에게 전달되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연구자가 자문을 요청한 제3의 심리학자가 한국어 번역본과 영어 역번역본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표현이나 단어의 차이가 조정되었다.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개발

한국인들의 도덕손상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국외에서 개발된 척도들을 검토하였다. 대표적 해외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cience Direct와 Pubmed에서 ‘moral injury’, ‘moral’, 혹은 ‘morality’를 검색하여 관련 논문들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도덕손상 척도들을 개발한 경험적 연구들을 수집하였고(Battles et al., 2018; Currier et al., 2015; Currier et al., 2018; Litz et al., 2009; Nash et al., 2013; Robbins et al., 2017), 제시된 문항들을 정리하고 비교하였다. 부가하여 퇴역군인들을 대상으로 도덕손상을 평정한 연구들의 개관논문(Koenig et al., 2019)을 통해 도덕손상은 도덕가치를 위반한 사건의 유형별(예, 위반, 배신)로 혹은 도덕과 관련된 정서(예, 죄책감, 수치심) 별로 측정되어 온 점을 확인하였다. 이 개관논문과 경험적 연구들을 정독하고 문항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도덕손상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사건을

2) 척도의 번역과 한국어 표준화를 위해 William P. Nash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승인을 얻음

인식한 바를 측정하거나, 사건으로 인한 경험을 측정하거나, 혹은 이 둘을 측정하여 종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온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직업적 특징에 구애받지 않으며, 특정한 도덕손상 사건이 편중되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조건에서 한국인들의 도덕손상 경험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행동의 주체를 ‘자기와 타인’으로, 사건의 유형을 ‘위반과 배신’으로 설정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주관적 반응을 측정하도록 문항의 구조를 가정하였다.

다음으로 행동의 주체 및 사건의 유형별로 경험하는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임상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상심리전문가 2인의 자문을 구하였다. 도덕손상이 널리 공유된 개념이 아니므로 척도와 관련된 논문들과 문항을 제공하였다. Drescher 등(2011)과 같이 도덕손상을 일으키는 사건을 배신, 과도한 폭력 행위, 민간인이 관련된 사건 및 동급 폭력 행위로 구분하는 것은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논의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Currier 등(2018)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자기지향 반응과 타인지향 반응으로 주체를 구분하였고, 신뢰가 손상되는 ‘배신’이 독립요소로 구분된 연구 결과(Jordan et al., 2017; Nash et al., 2013)에 근거하여 자신이 주체이며 위반을 다루는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이 초래한 손상’, 타인이 주체이며 위반을 다루는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이 초래한 손상’ 및 타인이 주체이며 배신을 다루는 ‘타인의 배신이 초래한 손상’의 세 가지 요소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요소별로 경험하는 반응을 구체화하고자 선행연구들에서 도덕손상 사건이 초래한 결과로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죄책감, 수치심, 자신이나 타인을 용서할 수 없는 것, 사회적 철수’를 주로 측정

한 점을 확인하였다(Battles et al., 2018; Litz et al., 2009). 이에 더하여 낮은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목격한 경우에 분노감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제안되었고, 구체적인 정서나 대인간 반응과 상관없이 도덕가치에 위배되는 사건을 지각한 점을 측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인들의 도덕손상 경험 척도는 ‘자신 위반, 타인 위반, 타인 배신’의 세 요소별로 ‘지각 혹은 인식, 죄책감, 수치심, 분노감, 용서할 수 없음, 사회적 철수’를 측정하는 1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성된 문항은 연구자가 자문을 요청한 제3의 심리학자가 문항의 표현을 조정하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초기문항

Nash 등(2013)이 개발한 6점 척도(1=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6=매우 강하게 경험했다.)의 한글판이다. 원척도의 최종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자신 혹은 타인의 위반 지각’ 6문항과 ‘타인의 배신 지각’의 경험을 측정하는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요소별 해당 문항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수렴타당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도덕손상 경험 척도 초기문항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18개 문항이며, 6점 척도(1=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6=매우 강하게 경험했다.)로 응답하게 된다. 최초 개발 과정에서 ‘자신에 의한 손상’ 6문항, ‘타인에 의한 손상’ 6문항,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요소별 해당 문항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수렴타당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치심 및 죄책감 상태 척도

‘수치심’ 5문항, ‘죄책감’ 5문항, ‘자부심’ 5문항으로 이루어진 Marschall 등(1994)의 The State Shame and Guilt Scale(SSGS)를 Park과 Chang(2018)이 한국어로 번역한 척도에서 수치심과 죄책감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척도(1=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5=매우 강하게 느껴진다.)로 응답하게 된다. 연구 1에서 내적일치도계수는 수치심의 Cronbach's $\alpha = .77$, 죄책감의 Cronbach's $\alpha = .84$ 이었으며, 요소별 문항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수렴타당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판 상태분노 척도

한덕웅 등(1996)이 개발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에서 상태분노를 측정하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Hahn et al., 1996).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된다. 연구 1에서 내적일치도계수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10개 문항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수렴타당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최종 분석에 포함된 496명을 무작위로 두 개의 표집으로 나누었다. 252명으로 구성된 표집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고, 이 과정을 통해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와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최종 문항이 결정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KMO (Keiser-Meyer-Olkin) 측도, Bartlett χ^2 이 검토되었고, 주축분해법으로 요인을 추출하였다.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데 고유값 1.0을 설정하였고, 직교회전을 사용하여 최종 요인행렬이 산

출되었다. 244명으로 구성된 표집은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및 수렴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분석에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공변량구조방정식을 적용하였고, 측정모형의 부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최종 모형을 선정하였다.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와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최종 문항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으며,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죄책감, 수치심 및 분노와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AMOS 25.0판이 사용되었고, 나머지 통계분석에 SPSS 25.0판이 사용되었다.

결 과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문항분석

한국어로 번역된 Nash 등(2013)의 도덕손상 사건 척도(Moral Injury Events Scale) 9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나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보았다.’의 평균이 가장 높았고($M=3.00$), ‘나는 나의 도덕 규범이나 가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의 평균이 가장 낮았다($M=1.83$).

KMO 측도가 .84이었고, Bartlett $\chi^2 = 1,558.33(p < .001)$ 이었으며, 두 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직교회전한 최종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요인의 고유값이 3.21이며 이는 전체의 35.70%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의 고유값은 2.48이며 이는 전체의 27.51%를 설명하였다. 이 두 요인으로 변량의 63.21%가 설명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자신 혹은 타인의 위

표 1. Nash 등(2013)의 한국판 문항의 기술통계치, 요인부하량 및 공통분(n=252)

문항	평균(*)	(SD)	요인1	요인2	공통분
요인1: 자신 혹은 타인의 위반 지각					
나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보았다.	3.00(3.22)	(1.55)	.56	.35	.43
나는 타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목격하여 괴롭다.	2.67(2.08)	(1.48)	.67	.35	.57
나는 나의 도덕 규범이나 가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1.83(1.99)	(1.04)	.70	.18	.52
나는 나의 도덕이나 가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여 괴롭다.	2.33(1.78)	(1.40)	.81	.22	.71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여 나의 도덕을 위반하였다.	2.17(1.91)	(1.23)	.64	.24	.46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여 나의 도덕을 위반하여서 괴롭다.	2.58(1.80)	(1.42)	.73	.27	.61
요인2: 타인의 배신 지각					
나는 내가 신뢰하던 당사(리더)에 의해 배신당하였다고 느낀다.	2.76(2.07)	(1.56)	.24	.96	.98
나는 내가 신뢰하던 동료에 의해 배신당하였다고 느낀다.	2.72(1.90)	(1.55)	.31	.90	.90
나는 내가 신뢰하던 군복무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 배신당하였다고 느낀다.	2.30(1.94)	(1.36)	.45	.54	.50
고유값			3.21	2.48	
(설명비율)			(35.70)	(27.51)	

*괄호 안의 값은 원척도를 개발한 논문에서 보고된 평균임

반 지각'에 원척도에서 제안한 6개 문항이 동일하게 부하되었고, 부하량은 모두 .50이었다. 두 번째 요인인 '타인의 배신 지각'에 원척도에서 제안한 3개 문항이 동일하게 부하되었고, 부하량은 모두 .50이었다. Nash 등(2013)이 제안한 요인구조의 요인부하량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값이 추출되었다.

본 연구자가 개발한 도덕손상 경험 척도(Moral Injury Experience Scale) 18개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분노감을 경험하였다.'는 문항에 대한 반응이 $M=3.86$ 으로 가장 높았고,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다.'는 문항에 있다는 반응이 $M=2.01$ 로 가장 낮았다.

KMO(Keiser-Meyer-Olkin) 측도가 .91이었고,

Bartlett $\chi^2=3,641.43(p<.001)$ 이었으며,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직교회전한 최종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요인의 고유값이 4.76이며 이는 전체의 26.43%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의 고유값은 4.37이며 이는 전체의 24.29%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의 고유값은 2.54이며 이는 전체의 14.08%를 설명하였다. 이 세 요인으로 변량의 64.80%가 설명되었다. 첫 번째 요인인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에 6개 문항이 부하되었고, 부하량은 모두 .60이상이었다. 두 번째 요인인 '자신에 의한 손상'에 6개 문항이 부하되었고, 부하량은 모두 .60이상이었다. 세 번째 요인인 '타인에 의한 손상'에 .60 이상으로 부하된 문항은 3개 문항이었다. 나머지 3개 문항은 부하량이 낮을 뿐 아니라,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에 의해서 자

표 2. 도덕손상 경험 척도 18개 문항의 기술통계치, 요인부하량 및 공통분(n=252)

문항	평균	(SD)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분
요인1: 자신에 의한 손상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인식하였다.	3.00	(1.10)	.13	.65	.29	.53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죄책감을 경험하였다.	3.01	(1.31)	.13	.82	.24	.74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수치감을 경험하였다.	2.66	(1.34)	.26	.85	.20	.82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분노감을 경험하였다.	2.36	(1.20)	.25	.79	.15	.71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2.34	(1.24)	.29	.80	.09	.73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다.	2.01	(1.08)	.34	.66	.12	.57
요인2: 타인에 의한 손상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인식하였다.	3.82	(1.25)	.09	.34	.73	.66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죄책감을 경험하였다.	2.56	(1.14)	.31	.37	.28	.31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수치감을 경험하였다.	2.56	(1.28)	.35	.33	.40	.39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분노감을 경험하였다.	3.86	(1.30)	.25	.13	.77	.67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3.61	(1.39)	.33	.16	.75	.70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다.	2.69	(1.26)	.53	.32	.32	.49
요인3: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						
타인이 나를 배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68	(1.32)	.79	.12	.23	.68
타인의 배신으로 죄책감을 경험하였다.	2.25	(1.12)	.72	.33	.08	.63
타인의 배신으로 수치감을 경험하였다.	2.36	(1.29)	.82	.25	.15	.75
타인의 배신으로 분노감을 경험하였다.	2.99	(1.59)	.78	.24	.32	.76
타인의 배신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2.91	(1.52)	.81	.22	.27	.77
타인의 배신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다.	2.50	(1.33)	.80	.23	.13	.72
고유값 (설명비율)			4.76 (26.43)	4.37 (24.29)	2.54 (14.08)	

신이 죄책감, 수치감, 고립감을 경험하는 것이 일상에서 극히 드물게 경험될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에 이 문항들을 제외하는 것을 고려하였다.

3개 문항을 제외하고 분석한 결과에서 KMO (Keiser-Meyer-Olkin) 측도가 .90, Bartlett²= 3,119.09(p<.001)이었으며, 최종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첫째 요인의 고유값이 4.27이며 이는 전체의 28.47%를 설명하였다. 두 번째 요인의 고유값은 4.09이며 이는 전체의 27.27%를 설명하였다. 세 번째 요인의 고유값은 2.19이며 이는 전체의 14.60%를 설명하였다. 이 세 요인으로 변량의 70.34%가 설명되었다. 요인 부하량을 보면, 첫 번째 요인에 6개 문항이 부

표 3. 도덕손상 경험 척도 15개 문항의 기술통계치, 요인부하량 및 공통분(n=252)

문항	평균	(SD)	요인1	요인2	요인3	공통분
요인1: 자신에 의한 손상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인식하였다.	3.00	(1.10)	.13	.65	.29	.53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죄책감을 경험하였다.	3.01	(1.31)	.14	.83	.25	.77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수치감을 경험하였다.	2.66	(1.34)	.26	.85	.19	.83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분노감을 경험하였다.	2.36	(1.20)	.25	.79	.14	.71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2.34	(1.24)	.29	.81	.10	.75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다.	2.01	(1.08)	.33	.66	.09	.55
요인2: 타인에 의한 손상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인식하였다.	3.82	(1.25)	.10	.35	.71	.64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분노감을 경험하였다.	3.86	(1.30)	.25	.14	.80	.72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3.61	(1.39)	.33	.18	.73	.68
요인3: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						
타인이 나를 배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68	(1.32)	.79	.12	.23	.69
타인의 배신으로 죄책감을 경험하였다.	2.25	(1.12)	.72	.33	.06	.63
타인의 배신으로 수치감을 경험하였다.	2.36	(1.29)	.81	.25	.12	.74
타인의 배신으로 분노감을 경험하였다.	2.99	(1.59)	.79	.25	.34	.81
타인의 배신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2.91	(1.52)	.83	.23	.29	.82
타인의 배신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다.	2.50	(1.33)	.79	.24	.12	.70
고유값 (설명비율)			4.27 (28.47)	4.09 (27.27)	2.19 (14.60)	

하되었고, 부하량은 모두 .60 이상이였다. 두 번째 요인에 6개 문항이 부하되었고, 부하량은 모두 .60 이상이였고, 세 번째 요인에 3개 문항이 부하되었고, 부하량은 모두 .70 이상이였다.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요인구조

한국어로 번역된 Nash 등(2013)의 도덕손상

사건 척도(Moral Injury Events Scale)가 두 개 요인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 모형의 경로도를 그림 1에 제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지수들을 표 4에 제시하였다. 오차간 상관은 Nash 등(2013)의 원척도 개발 당시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수정지표(Modification Indices)를 검토하였을 때 Par change 값이 .40 미만이어서 자유화를 추가하지 않았다.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초기 18개의 문항이 3개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그림 2), 15개 문항

표 4.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n=244)

모형	χ^2	df	CFI	TLI	RMSEA(90% CI)
도덕손상 사건 척도 9문항 2요인 모형	87.39	21	.96	.92	.11(.09~.14)
도덕손상 경험 척도 18문항 3요인 모형	605.18	131	.87	.85	.12(.11~.13)
도덕손상 경험 척도 15문항 3요인 모형	363.48	87	.91	.89	.11(.09~.12)
도덕손상 경험 척도 15문항 2요인 모형	611.16	89	.83	.80	.15(.14~.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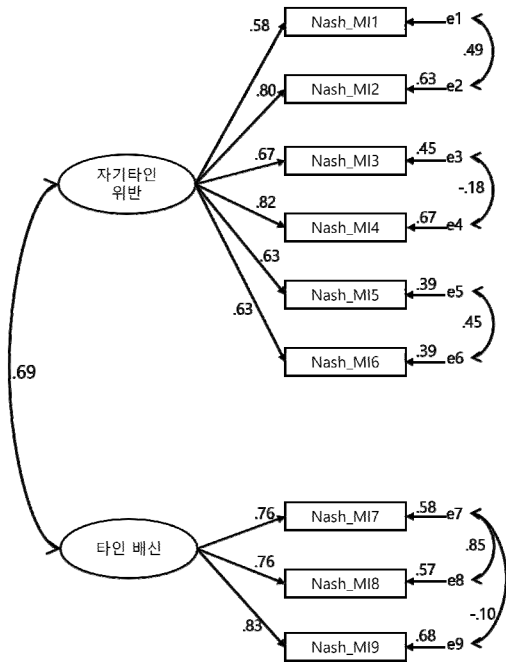


그림 1.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의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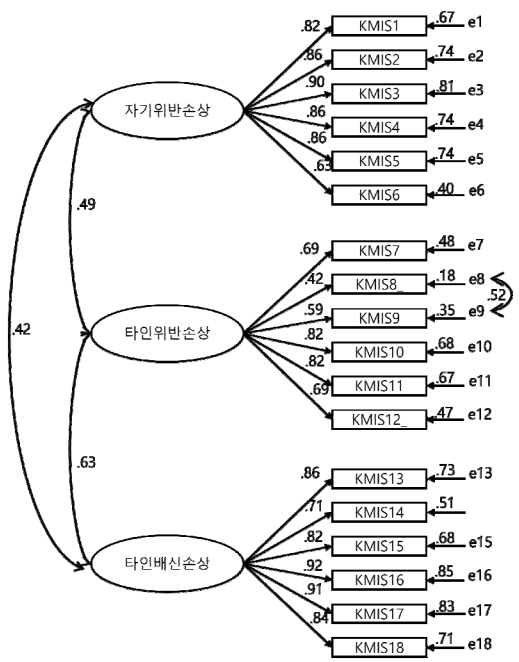


그림 2. 도덕손상 경험 척도 18문항 3요인의 측정모형

이 3개 요인으로 구성된 모형(그림 3) 및 타인에 의한 손상과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정한 모형(그림 4)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다.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부합도 지수를 고려하여 15문항 3개 요인구조 모형이 최종 선택되었다.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신뢰도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와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Cronbach's α 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표 5과 표 6).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의 '자신 혹은 타인의 위반 지각' 요인의 Cronbach's α = .86, '타인의 배신 지각' 요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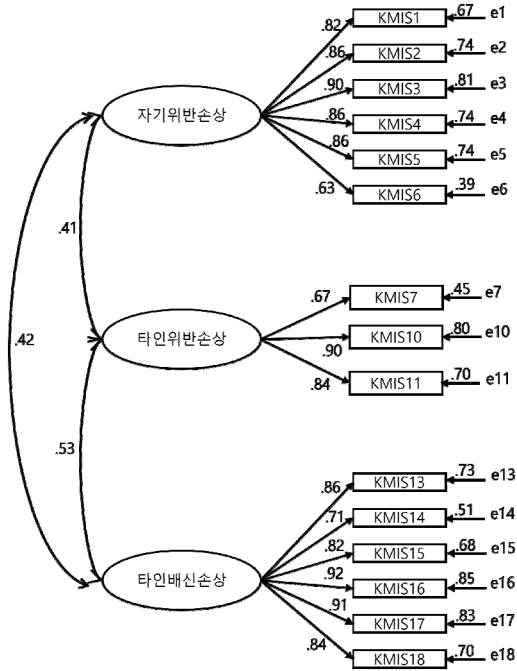


그림 3. 도덕손상 경험 척도 15문항 3요인의 측정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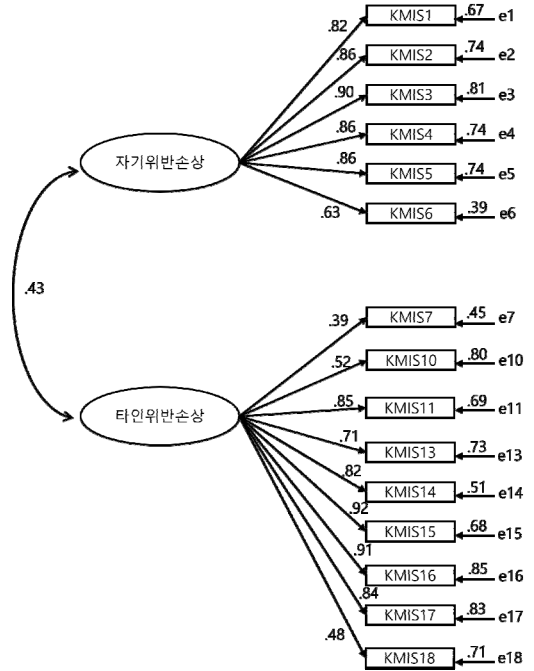


그림 4. 도덕손상 경험 척도 15문항 2요인의 측정모형

표 5.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9개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n=244)

문항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Cronbach'
나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보았다.	.59	.85
나는 타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목격하여 괴롭다.	.73	.82
나는 나의 도덕 규범이나 가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였다.	.61	.85
나는 나의 도덕이나 가치를 위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여 괴롭다.	.74	.82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여 나의 도덕을 위반하였다.	.62	.84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못하여 나의 도덕을 위반하여서 다.	.67	.84
‘자신 혹은 타인의 위반 지각’의 Cronbach'		.86
나는 내가 신뢰하던 상사(리더)에 의해 배신당하였다고 느낀다.	.87	.77
나는 내가 신뢰하던 동료에 의해 배신당하였다고 느낀다.	.88	.75
나는 내가 신뢰하던 군복무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 배신당하였다고 느낀다.	.62	.97
‘타인의 배신 지각’의 Cronbach'		.89

표 6. 도덕손상 경험 척도 15개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n=244$)

문항	문항-전체 상관	문항 제거시 Cronbach'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을 인식하였다.	.73	.92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죄책감을 경험하였다.	.82	.91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수치감을 경험하였다.	.86	.90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분노감을 경험하였다.	.81	.91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자신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82	.91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다.	.65	.93
‘자신에 의한 손상’의 Cronbach'		.93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인식하였다.	.63	.86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분노감을 경험하였다.	.78	.72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73	.76
‘타인에 의한 손상’의 Cronbach'		.85
타인이 나를 배신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81	.93
타인의 배신으로 죄책감을 경험하였다.	.72	.94
타인의 배신으로 수치감을 경험하였다.	.82	.92
타인의 배신으로 분노감을 경험하였다.	.87	.92
타인의 배신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기 어려웠다.	.87	.92
타인의 배신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 어려웠다.	.81	.93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의 Cronbach'		.94

Cronbach' = .89이었다.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세 요인, 즉, ‘자신에 의한 손상’ 요인, ‘타인에 의한 손상’ 요인 및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 요인의 Cronbach' 는 각각 .93, .85, .94이었다.

및 분노의 상관관계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수치심, 죄책감 및 분노와 도덕손상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였다($.15 \leq r \leq .46, p < .01$).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수렴타당도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의 두 요인,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세 요인, 수치심, 죄책감

연구 2.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재타당화

방 법

표 7.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 하위요인, 수치심, 죄책감 및 분노의 상관관계

(n=244)

변인	M(SD)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한 위반 지각	타인의 배신 지각	자신에 의한 손상	타인에 의한 손상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	수치심	죄책감	분노
자신 혹은 타인의 위반 지각	2.43 (1.03)	—							
타인의 배신 지각	2.69 (1.37)	.60***	—						
자신에 의한 손상	2.50 (1.01)	.47***	.32***	—					
타인에 의한 손상	3.76 (1.14)	.46***	.39***	.44***	—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	2.66 (1.20)	.48***	.49***	.47***	.48***	—			
수치심	2.10 (.83)	.32***	.15**	.38***	.25***	.30***	—		
죄책감	2.56 (.76)	.40***	.21***	.46***	.34***	.37***	.73***	—	
분노	1.91 (.57)	.31***	.22***	.30***	.33***	.28***	.37***	.39***	—

** $p < .01$, *** $p < .001$

조사절차 및 참가자

임의표집 방식으로 2020년 12월에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한국인들의 다양한 상황에 대한 반응을 알아본다.”라고 설명하였다. 참가자들은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도덕손상 경험 척도, 죄책감, 수치심 및 분노에 더하여 우울, 정신건강 및 삶의만족을 측정하는 문항들에 대해 응답하였고,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온라인 조사 기관으로부터 4,000원³⁾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부여받았다. 나머지 절차는 연구 1과 동일하였다.

3) 연구 1에서는 3,000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온라인 조사기관에서 참가자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연구 2에서는 참가자들이 응답해야하는 문항의 수가 증가하여 4,000원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제공하였음

535명의 자료는 모두 유효한 자료로 간주되었다. 남성 269명(50.28%)과 여성 266명(49.72%)으로 구성되었다. 평균연령은 37.32세($SD=12.06$)이었으며, 최소연령은 20세, 최대연령은 69세이었다. 20대 124명(24.80%), 30대 135명(27.00%), 40대 121명(24.20%), 50대 67명(13.40%), 60대 53명(10.60%)이었다. 대학교 졸업 이상 366명(68.41%), 고등학교 졸업 이하 169명(31.59%)이었다.

측정도구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연구 1을 통해 표준화한 6점 척도(1=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6=매우 강하게 경험했다.)의 9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 1과 동일하게 평균값을 산출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도덕손상 경험 척도

연구 1을 통해 표준화한 6점 척도(1=전혀 경험하지 않았다. 6=매우 강하게 경험했다.)의 15문항을 사용하였다. 연구 1과 동일하게 평균값을 산출하고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치심 및 죄책감 상태 척도

연구 1과 동일한 5점 척도(1=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5=매우 강하게 느껴진다.)의 수치심과 죄책감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적일치도계수는 수치심 5개 문항의 Cronbach's $\alpha = .76$, 죄책감 5개 문항의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평균값을 산출하여 타당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판 상태분노 척도

분노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연구 1과 동일한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의 10문항을 사용하였다. 내적일치도계수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타당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

우울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산 등(2016)이 재표준화한 한국판 역학연구 우울척도(K-CESD-R)의 20문항을 사용하였다(Lee et al., 2019). 참가자들은 각 문장이 기술하는 내용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경험하였는지 4점 척도(1=극히 드물다. 4=대부분 그랬다.)로 응답하게 된다. 내적일치도계수는 Cronbach's $\alpha = .88$ 이었고, 20개 문항의 총점을 산출하여 타당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척도

전반적 정신건강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선인(2001)이 개발한 한국판 일반정신건강 척도(KGHQ)의 단축형을 사용하였다(Shin, 2001).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1=매우 아니다, 4=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된다. 내적일치도계수는 Cronbach's $\alpha = .91$ 이었고, 20개 문항들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타당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삶의만족 척도

삶에 대해 지각하는 만족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서은국(2005)이 변안한 삶의만족 척도를 사용하였다(Suh, 2005).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7점 척도(1=전혀 아니다, 7=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된다. 내적일치도계수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타당도 분석에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

535명으로 구성된 표집에 대해 공변량구조 방정식 모형을 적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부합도지수를 확인하였다. 이 분석에는 AMOS 25.0판이 사용되었다. 구성개념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여 확인하였다. 수렴타당도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도덕손상과 수치심, 죄책감 및 상태분노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덕손상과 우울감, 정신건강 및 삶의만족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이상의 통계분석에 SPSS 25.0판이 사용되었다.

결 과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신뢰도 재검증
척도의 요인구조 재검증

연구 1과 동일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반복 실시하여 요인 구조를 재검증하였고, 추출된 적합도 지수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연구 1에서 얻은 결과가 재확인되었다.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와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신뢰도를 Cronbach'의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여 재검증하였다.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의 '자신 혹은 타인의 위반 지각' 요인의 Cronbach' = .89, '타인의 배신 지각' 요인의 Cronbach' = .89이었다.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세 요인의 Cronbach'는 각각 .94, .85, .95이었다.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표 8.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적합도 지수($n=535$)

모형	χ^2	df	CFI	TLI	RMSEA(90% CI)
도덕손상 사건 척도 9문항 2요인 모형	83.37	21	.98	.97	.08(.06~.09)
도덕손상 경험 척도 18문항 3요인 모형	1185.01	131	.88	.86	.12(.12~.13)
도덕손상 경험 척도 15문항 3요인 모형	707.18	87	.92	.90	.10(.08~.12)
도덕손상 경험 척도 15문항 2요인 모형	1230.05	89	.85	.82	.16(.15~.16)

표 9.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 하위요인, 수치심, 죄책감 및 분노의 상관관계

($n=535$)

	M(SD)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한 위반 지각	타인의 배신 지각	자신에 의한 손상	타인에 의한 손상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	수치심	죄책감	분노
자신 혹은 타인의 위반 지각	2.14 (1.03)	—							
타인의 배신 지각	2.12 (1.19)	.67***	—						
자신에 의한 손상	2.39 (1.04)	.49***	.43***	—					
타인에 의한 손상	3.21 (1.21)	.34***	.39***	.39***	—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	2.21 (1.22)	.47***	.56***	.56***	.30***	—			
수치심	2.09 (1.01)	.30***	.12**	.30***	.22***	.30***	—		
죄책감	2.34 (.88)	.38***	.20***	.43***	.30***	.32***	.76***	—	
분노	1.90 (.72)	.29***	.19**	.31***	.32***	.22***	.35***	.34***	—

** $p < .01$, *** $p < .001$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수렴타당도 재검증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의 두 요인,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세 요인, 수치심, 죄책감 및 분노의 상관관계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수치심, 죄책감 및 분노와 도덕손상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의 상관관계가 모두 유의하였다($.12 \leq r \leq .43, p < .01$).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준거타당도

도덕손상 사건 및 도덕손상 경험과 삶의만족, 일반정신건강,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도덕손상의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의 우울감과 상관관계가 모두 정적으로 유의하였고($.27 \leq r \leq .43, p < .001$), 정신건강과 모두 부적적으로 유의하였다($-.34 \leq r \leq -.22, p < .001$). 반면에 도덕손상과 삶의만족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07 \leq r \leq -.03$)

논 의

도덕손상은 최근 소개된 개념으로 외상사건을 겪은 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나 우울장애와 같이 심각한 수준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외에서 이들의 도덕손상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들이 개발되었고, 마음챙김과 변증법적행동치료를 활용한 치료기법(Evans et al. 2020)도 제안되어 적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심리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정신병리와 관련된 도덕행동이나 도덕판단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Jin, Cha, & Song, 2019; Youn, 2018), 상담 및 심리치료에서 도덕손상의 활용 가능성이 제안되었다(Kwon & Son, 2020). 그러나 도덕손상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한 도덕손상 평가도구는 찾아볼 수 없다.

본 연구는 외상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지 않더라도 자신과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에 의해 자신의 도덕신념이 위협받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고 간주하였다. 우리 사회의 최근 주요 화두로 ‘공정’과 ‘정의’가 자주 등장하는 점을 보면, 한국인들은 도덕신념이나

표 10.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 및 도덕손상 경험 척도 하위 요인, 삶의만족, 일반정신건강, 우울감의 상관관계($n=535$)

	M(SD)	자신 혹은 타인에 의한 위반	자신의 배신	타인의 배신	자신에 의한 손상	타인에 의한 손상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	삶의 만족	일반 정신 건강	우울감
삶의만족	3.83 (1.15)	-.03	-.05	-.07	-.07	-.07	-.07	-		
일반정신건강	2.62 (.47)	-.23***	-.22***	-.34***	-.22***	-.30***	-.30***	.65***	-	
우울감	39.83 (9.69)	.34***	.32***	.43***	.27***	.40***	.40***	-.42***	-.71***	-

** $p < .01$, *** $p < .001$

도덕가치에 위배되는 행동들에 직면할 때 다양한 반응을 드러낸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Nash 등(2013)의 척도를 표준화하고,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도덕손상 경험을 측정하는 척도를 별도로 개발하고자 두 개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주요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Nash 등(2013)의 원척도의 9문항 2요소 구조가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에서도 반복검증되었다. 원척도 개발 당시의 요인구조의 경로모형과 동일하게 자유화한 조건에서 표준화 경로계수가 원척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추출되었다. ‘자신 혹은 타인의 위반 지각’ 요소의 신뢰도가 연구 1에서 .86, 연구 2에서 .89이었으며, ‘타인 배신 지각’ 요소의 신뢰도가 연구 1과 연구 2에서 모두 .89로 나타나서 자신이나 타인이 도덕 기준을 위반한 사건 및 타인의 배신을 인식한 사건을 신뢰롭게 측정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 1과 연구 2에서 ‘자신 혹은 타인의 위반 지각’ 요소가 수치심, 죄책감, 분노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타인 배신 지각 요소’도 수치심, 죄책감, 분노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가 수렴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2에서 자신 혹은 타인의 위반을 지각하였을수록 그리고 타인의 배신을 지각하였을수록, 우울감은 높고, 정신건강 수준은 낮았다. 이는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가 준거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도덕손상 경험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초기 18문항 3요소가 가정되었으나, 최종 15문항 3요소로 타당화되었다. 즉, 자신에 의한 손상 6문항, 타인에 의한 손상 3문항,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 6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신뢰도는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18문항 3요소 구조보다 15

문항 3요소 구조에서 부합도 지수가 향상되는 점이 두 연구에서 반복검증되었다. 또한 한국판 도덕손상 사건 척도와 유사하게 세 가지 도덕손상 경험 요소들도 수치심, 죄책감, 분노와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우울감과 정적 상관을, 일반정신건강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어서 도덕손상 경험 척도가 수렴타당도와 준거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세 가지 도덕손상 유형 가운데 타인에 의한 손상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연구 1, $M=3.76$, 연구 2, $M=3.21$). 이는 다른 두 요소가 2.21에서 2.66의 평균값을 보인 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타인에 의한 손상 경험은 분노와 더불어 죄책감과 유사한 수준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들이 도덕적으로 손상당하는 경험은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에 기인할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지각할수록 분노와 더불어 죄책감도 경험하는 점을 시사한다.

타인에 의한 손상 요소와 타인에 의한 배신 요소가 타인을 주체로 설정하고 있으며 타인에 의한 손상의 초기 6개 문항 가운데 3개 문항이 제외되었으므로 이 두 요소를 한 요인으로 통합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문항의 개발과 분석 과정에서 고려된 점이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타인의 여러 부도덕한 행동 가운데 ‘배신’ 행위가 독립된 요소로 작동하는 점이 확인되었고(Nash et al., 2013), 도덕손상에 대한 국내의 개관연구에서 도덕손상을 일으키는 행위가 ‘위반’과 ‘배신’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이 제안되었다(Kwon & Son, 2020).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2요인 구조보다 3요인 구조의 부합도 지수가 양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15문항 3요인 구조를 최

중선택하였다.

원척도를 개발한 국외연구에서 보고된 평균값과 한국 성인들로부터 추출된 동일 문항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사회문화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타인의 부도덕한 행위를 목격하였다는 반응의 평균값이 선행연구에서 3.22, 본 연구에서 3.00으로 유사하게 가장 높았다. 즉,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도덕손상과 관련하여 타인의 부도덕을 인식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한국인들은 타인의 부도덕한 행위 혹은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는 수준이 2.33에서 2.67로 나타났다. 표 7의 도덕손상 경험 수준도 이와 유사한 2.50에서 3.76으로 나타났다. 국외연구에서 타인의 부도덕한 행위와 자신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고통을 경험하는 수준은 1.78에서 2.08이었다. 따라서 한국인들이 타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경험하는 고통 수준이 더 높았다.

이와 같은 차이를 초래한 원인으로 연구가 진행된 시점에서 한국사회에서 공정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기대가 특출해졌고, 타인이 이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지각이 높아졌을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연구가 진행된 2020년은 코로나 위기로 인해 정치적 신념이나 선호에 따라 여론의 양극화가 두드러진 시대에 포함된다(Lim, Lee, Jung, & Choi, 2019). 이에 공공의 안전을 비롯해 주요 사안에 대해 자신과 다른 견해를 드러내거나 혹은 기준에 어긋나게 행동에 대한 인식이나 그로 인한 고통 수준이 높았을 수 있다.

Battles 등(2018)과 Drescher 등(2011)의 연구는 도덕손상이 우울이나 정신건강의 문제에 더하여 자살기도,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이거나 직업적 문제 혹은 영적/존재론적 고민을 초래하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도덕손상

사건이나 그로 인한 경험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낮출 것이라 예상하였다. 그러나 한국판 도덕사건 척도의 2개 요소, 도덕손상 경험 척도의 3개 요소와 삶의만족 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으며, 0에 가까운 수준이었다. 이는 연구대상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도덕손상은 외상을 겪은 퇴역군인들에게 삶에 대한 고민과 자살사고를 초래하지만, 일반성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추론할 수 있다.

자신에 의한 손상 경험은 타인에 의한 경험보다 평균값이 두드러지게 낮지만, 도덕손상의 다른 두 요소보다 수치심, 죄책감, 분노, 우울감 및 일반정신건강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한국 성인들은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도덕적으로 손상당하는 경험은 가장 약한 수준이지만, 이 경험이 발생하면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인 도덕정서를 강하게 경험하게 하며, 정서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보다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이, 그리고 타인의 전반적인 부도덕보다는 배신하는 행동이 우울감이나 정신건강과 더 높은 상관강도를 보였다. 타인의 배신으로 인한 도덕손상 경험은 자신에 의한 손상 경험과 유사한 정도로 평균값이 낮았다.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에 비해 타인의 배신은 구체적이며 발생 빈도가 낮은 행동이므로 실질적으로 경험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배신은 자신과 직접 관련되므로 정서나 정신건강 측면에서 자신에 의한 손상 경험과 유사한 정도로 부정적 효과를 보였다. 자기관련성은 동양인들의 도덕적 지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Bian

et al, 2019)와 타인보다 자신으로 인한 도덕손상이 자살가능성과 더 강하게 연결되고, 이러한 관계는 자신에게서 책임을 덜 찾을수록 완화되었다는 점을 보인 선행연구(Forkus et al., 2019; Kelley et al., 2019)를 고려하면, 도덕손상 사건은 그것과 자신의 관련성이 상승할 때 정신건강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향후 경험연구를 통해 검증하여 도덕손상의 완화기제를 탐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죄책감이 수치심이나 분노에 비해 도덕손상 사건이나 경험과 가장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타인이나 자신에 의한 위반 지각, 타인의 배신 지각, 자신에 의한 손상, 타인에 의한 손상 및 타인의 배신에 의한 손상 모두 수치심과 분노에 비해 죄책감과 상관성이 더 높았으며, 이는 두 연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도덕손상의 원천과 상관없이, 부도덕한 행동의 지각이나 인지는 다른 어떠한 정서보다 죄책감을 가장 강하게 유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타인에 의한 배신이나 행동도 분노감에 비해 죄책감과 더 높은 상관을 보인 이유는 불명확하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은 한국인들을 비롯한 아시아 문화권의 자신과 타인의 연결성(self-other connectedness) 혹은 자기와 타인의 약한 경계로 인한 우리성(Choi & Kim, 1999; Choi, 2011)을 들 수 있다. 즉,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은 자신과 무관하지 않으며, 이는 정서적 반응을 강하게 초래하였을 수 있다(Markus & Kitayama, 1991). 두 번째 가능성은 자신이 지각하거나 목격한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은 특출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자신도 종종 수행하는 행동이라는 점이다. 이에 타인에 의한 손상 경험은 유사한 자신의 행동 기억을 점화하여 자기관련 도덕정서인 죄책감

을 유발하였을 수 있다. 세 번째 가능성으로 도덕과 관련된 정서로서 죄책감의 기능을 생각해볼 수 있다. 사이버불링과 같은 부도덕한 행동을 주변에서 목격하여도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죄책감을 경험하였고(You & Hong, 2020), 죄책감은 수치심과 달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낮추는 효과를 보였다(Jang et al., 2014). 따라서 한국사회의 일반성인들은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을 목격하여도 죄책감을 경험하고, 이는 자신의 신념체계와 도덕적인 자기상을 유지하는 순기능을 하는 데 기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두 척도는 향후 경험연구 및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다. 외상을 겪은 생존자들과 외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포함하여 상하관계나 직업 특성이 작동하는 조건에서 위반이나 배신에 직면한 사람들이 도덕손상 사건을 인식한 수준이나 그로부터 경험한 바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상담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도덕손상 수준에 부합하는 치료프로그램 모델을 추가하여 작업할 수 있다. 치료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도덕손상 척도를 향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치료프로그램의 효과를 국내 표집을 대상으로 검증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도덕손상을 측정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기존의 도덕에 대한 국내연구는 도덕성 발달(Park & Jin, 2020), 도덕판단(Lee & Sul, 2019), 부도덕행위(Kim & Na, 2021)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러나 도덕적 기준이나 가치를 위협하는 사건은 주관적으로 고통을 초래하며, 다수에게 상당기간 누적되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최근 한

국사회 청년세대가 불공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에 수긍하지 않는 타인에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행위를 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SISAIN, 2019). 그러나 청년세대가 도덕 기준에 어긋나는 타인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감정과 생각을 지니게 되며, 그로 인해 경험하는 고통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경험적으로 파악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이들이 겪는 고통을 완화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조절 혹은 매개요인을 알아낸 연구도 극히 드물다. 이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활용하여 청년세대가 경험하는 도덕손상의 선행요인과 후속결과를 탐구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 및 장래 연구과제

첫째, 이 연구는 임의표집의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표집의 대표성과 반응의 신뢰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을 확인하여 과도하게 빠르게 혹은 느리게 응답한 사례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였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두 개의 온라인 조사에서 추출된 각종 통계값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므로 대표성과 신뢰성의 문제가 결과를 왜곡할 정도로 발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향후 층화표집이나 면대면 조사방식을 사용하였을 때에도 유사한 결과가 얻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도덕손상 경험 척도는 국외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한국어로 개발하였다.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 및 타인의 배신이라는 세 개의 요소별로 6문항씩 선정하여 초기 18문항이 구성되었고, 문항분석 결과 15문항 3요소 구조를 확정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경험하는 도덕손상을 3개 문항

으로 측정하였을 때 신뢰도는 여전히 다른 요소들보다 낮으며, 확인적 요인분석의 부합도 지수가 전반적으로 낮고, 초기 문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재검증하고 문항의 수정이나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연구에서 선정한 도덕손상 경험의 하위요소가 타당한지 반복검증할 필요가 있다. 자신으로 인한 도덕손상 경험과 타인으로 인한 도덕손상 경험을 구분하여 측정하고, 특정 직업에 구애받지 않은 상태에서 반응을 얻어낼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은 선행 연구들에 비해 개선된 부분이다(Battles et al., 2018; Currier et al., 2015, 2018; Nash et al., 2013; Robbins et al., 2017). 특히 평균값 및 다른 변인들과 지닌 상관계수에서 이 두 요소가 상이하게 나타난 점은 이러한 시도를 지지해 준다. 도덕손상 경험을 초래한 주체(예, 권력을 가진 타인, 도덕적이라 기대되는 이들 등) 혹은 배신하거나 침해한 기준 등을 다양하게 설정하여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넷째, 주체와 상관없이 도덕손상 경험이 죄책감과 높은 상관을 일관되게 보인 이유를 앞서 기술하였으나 본 연구는 이를 직접 검증하지 않았다. 타인의 부도덕한 행동이 자신의 부도덕한 행동에 대한 기억을 점화하는지 혹은 연대감이나 집합주의 성향이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지 장래연구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Nash 등(2013)의 척도 9문항에 대해 국외자료와 본 연구 자료의 평균값을 비교한 결과를 앞서 기술하였고, 그 차이를 초래한 원인을 설명할 대안가설을 제시하였다. 향후 반복검증을 실시하거나 혹은 대안설명을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설계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Battles, A. R., Bravo, A. J., Kelley, M. L., White, T. D., Braitman, A. L., & Hamrick, H. C. (2018). Moral injury and PTSD as mediators of the associations between morally injurious. *Traumatology, 24*(4), 246-254.
<https://doi.org/10.1037/trm0000153>
- Bian, J., Li, L., Sun, J., Deng, J., Li, Q., Zhang, X., & Yan, L. (2019). The influence of self-relevance and cultural values on moral orientation. *Frontiers in Psychology, 10*, 292-299.
<https://doi.org/10.3389/fpsyg.2019.00292>
- Bravo, A. J., Kelley, M. L., Mason, R., Ehlke, S. J., Vinci, C., & Redman, J. C. (2020). Rumination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s between moral injury and mental health problems in combat-wounded veterans. *Traumatology, 26*(1), 52-60.
<https://doi.org/10.1037/trm0000198>
- Bryan, C. J., Bryan, A. O., Roberge, E., Leifker, F. R., & Rozek, D. C. (2018). Moral injury,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suicidal behavior among National Guard personnel.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1), 10, 36-45.
<https://doi.org/10.1037/tra0000290>
- Choi, S. (2011). *The Psychology of Koreans*. Hakjisa. ISBN: 9788963306124
- Choi, S., & Kim, K. (1999). The self in the Koreans' mind in comparison with the Western self-concept.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3*(2), 275-292.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3077>
- Currier, J. M., Farnsworth, J. K., Drescher, K. D., McDermott, R. C., Sims, B. M., & Albright, D. L. (2018).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Expressions of Moral Injury Scale-Military Version.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25*(3), 474-488.
<https://doi.org/10.1002/cpp.2170>
- Currier, J. M., Holland, J. M., Rojas-Flores, L., Herrera, S., & Foy, D. (2015). Morally injurious experiences and meaning in Salvadorian teachers exposed to violence.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7*(1), 24-33.
<https://doi.org/10.1037/a0034092>
- Drescher, K. D., Foy, D. W., Kelly, C., Leshner, A., Schutz, K., & Litz, B. (2011). An exploration of the viability and usefulness of the construct of moral injury in war veterans. *Traumatology, 17*(1), 8-13.
<https://doi.org/10.1177/1534765610395615>
- Evans, W. R., Walser, R. D., Drescher, K. D., & Farnsworth, J. K. (2020). *The Moral Injury Workbook: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Skills for Moving Beyond Shame, Anger, and Trauma to Reclaim Your Values*. New Harbinger. ISBN: 9781684034772
- Fabricius, D. (2004). Guilt, shame, disobedience: Social regulatory mechanism and the "Inner Normative System" *Psychiatry Inquiry, 24*(2), 309-327.
<https://doi:10.1080/07351692409349085>
- Forkus, S. R., Breines, J. G., & Weiss, N. H. (2019). Morally injurious experiences and mental health: The moderating role of self-compassion. *Psychological Trauma: Theory,*

-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1(4), 630-638.
<https://doi.org/10.1037/tra0000481>
- Hahn, D., Lee, C. H., & Chon, K. K. (1996). Korean Adaptation of Spielberger's STAI (K-STAI).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1), 1-14.
UCI: I410-ECN-0102-2009-180-006949643
- Jang, J., Lee, K., & Jang, E. (2014). The Effects of Childhood Trauma and Temperament on Prisoners' Aggression and Impulsivity: Mediation Role of Moral Judgment and Moral Emotion.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7(3), 1-23.
- Jin, K., Cha, M., & Song, H. (2019). The relationships between autistic trait and socio-moral judgments.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25(2), 137-155.
<http://dx.doi.org/10.20406/kjcs.2019.5.25.2.137>
- Jordan, A. H., Eisen, E., Bolton, E., Nash, W. P., & Litz, B. T. (2017). Distinguishing war-related PTSD resulting from perpetration and betrayal-based morally injurious events.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9(6), 627-634.
<https://doi.org/10.1037/tra0000249>
- Kelley, M. L., Bravo, A. J., Davies, R. L., Hamrick, H. C., Vinci, C., & Redman, J. C. (2019). Moral injury and suicidality among combat-wounded veterans: The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connectedness and self-compassion.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11(6), 621-629.
<https://doi.org/10.1037/tra0000447>
- Kim, M., & Na, J. (2021). The moderating effects of gender and beneficiar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lass and unethic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5(2), 75-92.
<https://doi.org/10.21193/kjspp.2021.35.2.004>
- Koenig, H. G., Youssef, N. A., & Pearce, M. (2019). Assessment of moral injury in veterans and active duty military personnel with PTSD: A review. *Frontiers in Psychiatry*, 10, 443.
<https://doi.org/10.3389/fpsy.2019.00443>
- Kwon, C., & Son, E. (2020). A Review of Research on Moral Injury with its Implications to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27(4), 83-99.
<https://doi.org/10.35734/karp.2020.27.4.005>
- Lee, S., & Sul, S. (2019). Ingroup-outgroup difference in moral judgment: The effect of group membership of the transgressor and the location of transgressi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33(1), 19-52.
<https://doi.org/10.21193/kjspp.2019.33.1.002>
- Lee, S., Oh, S. T., Ryu, S. Y., Jun, J. Y., Lee, K. S., Lee, E., Park, J. Y., Yi, S. W., Choi, W. J. (2016).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Revised (K-CESD-R). *Korean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24(1), 83-93.
<https://ir.ymlib.yonsei.ac.kr/handle/22282913/151645>
- Lim, W., Lee, C., Jung, S., & Choi, D. (2019). *Opinion Polarization in Korea: Its Characteristics and Drivers*. Korean Development Institute. ISBN: 9791159325090
- Litz, B. T., Stein, N., Delaney, E., Lebowitz, L., Nash, W. P., Silva, C., & Maguen, S. (2009). Moral injury and moral repair in war veterans:

- A preliminary model and intervention strategy. *Clinical Psychology Review*, 29(8), 695-706.
<https://doi.org/10.1016/j.cpr.2009.07.003>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2), 224-253.
<https://doi.org/10.1037/0033-295X.98.2.224>
- Marschall, D., Sanftner, J., & Tangney, J. P. (1994). *The State Shame and Guilt Scale*. George Mason University.
- McCarthy, J., & Deady, R. (2008). Moral distress reconsidered. *Nursing Ethics*, 15(2), 254-262.
<https://doi.org/10.1177/0969733007086023>
- Nash, W. P., Marino-Carper, T. L., Mills, M. A., Au, T., Goldsmith, A., & Litz, B. T. (2013).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Moral Injury Events Scale. *Military Medicine*, 178(6), 646-652.
<https://doi.org/10.7205/MILMED-D-13-00017>
- Park, J., & Jin, K. (2020). Who should share? Preschoolers' judgments regarding the moral responsibility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toward "the poor".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3(2), 69-85.
<https://doi.org/10.35574/KJDP.2020.6.33.2.69>
- Park, S., & Chang, H. (2018). The effects of guilt on obsessive compulsive symptoms: Not just right experiences as a mediato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2), 144-154.
<https://doi.org/10.15842/kjcp.2018.37.2.002>
- Porter, B., Hoge, C. W., Tobin, L. E., Donoho, C. J., Castro, C. A., Luxton, D. D., & Faix, D. (2018). Measuring aggregated and specific combat exposures: Associations between combat exposure measures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depression, and alcohol-related proble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31(2), 296-306. <https://doi.org/10.1002/jts.22273>
- Ramsey, C., Dziura, J., Justice, A. C., Altalib, H. H., Bathulapalli, H., Burg, M., Decker, S., Driscoll, M., Goulet, J., Haskell, S., Kulas, J., Wang, K. H., Mattocks, K., & Brandt, C. (2017). Incidence of mental health diagnoses in veterans of operations Iraqi freedom, enduring freedom, and new dawn, 2001-2014.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7(2), 329-335.
<https://doi.org/10.2105/AJPH.2016.303574>
- Robbins, A. T., Kelley, M. L., Hamrick, H., Bravo, A., & White, T. (2017). *Modification to the Moral Injury Questionnaire to assess core moral injury symptomology*. Poster presented at the 29th Annual Association for Psychological Science Conference, Boston, Massachusetts, USA.
- Shin, S. (2001).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General Health Questionnaire: KGHQ-20 & KGHQ-30.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46, 210-23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7238254>
- SISAIN. (2019.04.18). Men in their twenties, who are they? SISAIN Vol 604.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373>
- Suh, E. (2005). Why are Koreans not that happy?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Korea*, 134-135.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6376726>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Guilford Press.
ISBN: 9781572307155
- You, J. I., & Hong, H. Y.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Bystander Defending Behavior in Cyberbully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Moral Disengagement and Guilt.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32(4), 1647-1668.
<https://doi.org/10.6115/fer2020.005>
- Williamson, V., Sharon A. M., Stevelink, S. A. M., & Greenberg, N. (2018). Occupational moral injury and mental health: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212(6), 339-346.
<https://doi.org/10.1192/bjp.2018.55>
- Wisco, B. E., Marx, B. P., Wolf, E. J., Miller, M. W., Southwick, S. M., & Pietrzak, R. H. (2014).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e US veteran population: Results from the National Health and Resilience in Veterans Study.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75(12), 1338-1346.
<https://doi.org/10.4088/JCP.14m09328>
- Youn, H. (2018). Instrumental and Reactive Transgressions of Primary and Secondary Psychopathic Traits: Focus on Moral Emotion, Moral Disengagement, and Unethical Decision Making.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7(3), 323-338.
<https://doi.org/10.15842/kjcp.2018.37.3.006>
- 1차원고접수 : 2021. 02. 02.
2차원고접수 : 2021. 07. 14.
최종게재결정 : 2021. 08. 20.

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Moral Injury Events Scale and Moral Injury Experience Scale

Eun-young Ja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Honam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scales that measures the extent to which Koreans perceive the events that are against their belief system and the extent to which they have suffered from those events. In the first study, the Moral Injury Events Scale comprised of nine items was constructed in Korean through double translation. Additionally, the Moral Injury Experience Scale was constructed with 18 items. In addition to these 27 items, the responses of 496 Korean adults who participated in an online survey on shame, guilt, and anger were analyzed. The total data were randomly divided with two samplings, one to conduct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the other to test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d convergent validity analysis. Factor analysis revealed the two-factor structure of nine items from the original scale was replicated, and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were also extracted at the similar level as the original scale. Each factor was assessed according to “perceiving your or others’ breach” with six items and “perceiving others’ betrayal” with three items. The Moral Injury Experience Scale was presumed to have three factors with 18 items, but it was validated to three factors with 15 items considering the conformity index. Each factor was assessed according to “damage by yourself” with six items, “damage by others” with three items, and “damage by others’ betrayal” with six items. The two factors of major injury events and three factors of moral injury experience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shame, guilt, and anger, thereby proving convergent validity. In the second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o collect responses about moral injury events, moral injury experience, shame, guilt, anger, life satisfaction, general mental health, and depression from 535 participants. The same item analysis as the first study was conducted to revalidate the reliability and factor structure of the two scales. In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at verified the criterion validity, the five subfactors of moral injury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eneral mental health and depression, and a near-zero correlation with life satisfaction. Compared to studies conducted overseas, this research described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moral injury experience of Koreans and Americans. It then discussed the effects of moral injury on morality-related emotions and mental health and suggested application plans of these scales.

Key words : moral injury, shame, guilt, anger, mental health